

# 여성 히어로물에 나타난 모순된 계급 양상 연구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과 <힘센여자 강남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tradictory Class Patterns in Female Superhero Stories

: Focusing on the TV dramas <Strong Woman Do Bong-soon> and <Strong Woman Gang Nam-soon>

강성애\*

**국문초록** 이 글은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과 <힘센여자 강남순>에 나타난 여성 히어로물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두 드라마가 성공한 여성 히어로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춰진 모순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다.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에서 주인공 도봉순은 청년 취업난의 표상이다. 봉순의 계급은 회사의 사장과 연애를 하면서 점차 상승한다. 재벌 남자 친구 때문에 본인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꿈을 이루고 원하던 직장 생활도 하게 된다. 이러한 전개는 힘센 여자가 경찰도 못 잡았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제압하고 자신이 사는 동네에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는 여성 히어로물 서사에 균열을 일으킨다. TV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에서 노숙자 신분을 거쳐 상위 1%의 부자가 된 주인공 강남순은 신자유주의 시대 양극화된 계급의 표상이다. 남순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충격을 받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부로 원하는 남자와 결혼에 성공하면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즐기는 양면성을 보인다. 이러한 장면은 드라마가 내내 보여주었던 사회 불평등을 비판하는 메시지와 상충한다.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과 <힘센여자 강남순>은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작품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 히어로라는 장치에 가려진 잘못된 계급 재현 양상들은 분명히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핵심어**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 TV 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 여성 히어로, 계급, 모순

- 차례**
1. 들어가며
  2. 성 역할 전복의 성취/실패: <힘센여자 도봉순>
  3. 사회 불평등 비판/강화: <힘센여자 강남순>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초능력자 캐릭터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한국 TV 드라마에서 점차 마블이나 DC에서 볼 수 있던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캐릭터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중 <별에서 온 그대>에 등장하는 외계인이나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의 도깨비 캐릭터는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모두 남자 배우가 연기했다. 여성 초능력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절, 작고 여린 이미지로 유명한 박보영 배우를 주인공으로 한 여성 히어로물이 등장한다. 바로 2017년에 방영된

\* 경민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sup>1</sup>(이하 <도봉순>)이다.

이 드라마를 집필한 백미경 작가는 같은 해 “한국 드라마에서 최초의 여성 히어로물이라는 시도를 성공으로 이끌며 장르의 외연을 확대했고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을 그려 사회적인 공감을 전달했다”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sup>2</sup> <도봉순> 이후 <보건교사 안은영>이나 <무빙>과 같은 드라마에서 지속해서 여성 히어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도봉순>이 여성 히어로물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는 타당해 보인다. <도봉순>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작품성 못지않게 대중성 또한 확보했다.<sup>3</sup> 또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사랑받았다.<sup>4</sup> 이처럼 <도봉순>은 여러모로 화제를 몰고 온 작품이었다.

백미경 작가는 6년 후 후속작인 <힘센여자 강남순><sup>5</sup>(이하 <강남순>)을 내놓는다. 이 드라마는 <도봉순>을 능가하는 인기를 얻었으며 <도봉순>보다 진보한 내용을 펼쳤다는 언론의 극찬도 많이 받았다.<sup>6</sup> 그런데 두 작품을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히 살펴보면 매우 모순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힘센여자 도봉순>, 백미경 극본, 이형민 연출, JTBC, 총 16부작, 2017.02.24~2017.04.15.

2 강서정, 「‘썰전’ 대통령 표창·‘도봉순’ 작가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OSEN』, 2017.12.05.

3 연희선, 「끝까지 썸 ‘도봉순’, TV화제성 1위 종영 “누리꾼 애정 ‘역대급’”, 『티브이데일리』, 2017.04.17; 한해선, 「9.8% ‘강남순’, 4회만 ‘도봉순’ 시청률 추월..넷플릭스 전 세계 5위 ↑」, 『스타뉴스』, 2023.10.16.

4 이혜리, 「텔레비전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의 낭만적 사랑과 ‘무해한 남성성’의 출현」, 『인문사회21』 11(4), 인문사회 21, 2020; 이훈, 「한국형 판타지 드라마의 여성 초능력 캐릭터에 대한 연구: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권유진, 「『박씨전』과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의 영웅 형상화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23; 서은선,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에 나타난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계승 양상: 고소설 『박씨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32, 포은학회, 2023.

5 <힘센여자 강남순>, 백미경 극본, 김정식·이경식 연출, JTBC, 총 16부작, 2023.10.07~2023.11.26.

6 황진미, 「일체의 억압도, 고구마도 없다: ‘힘센여자 도봉순’에서 ‘힘센여자 강남순’까지 6년 걸렸다 대.환.영.」, 『한겨레』, 2023.10.21; 어환희, 「도봉순보다 세졌다...악당 혼쭐내는 강남순」, 『중앙일보』, 2023.10.31.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계급은 ‘지위나 관직의 단계를 말하거나 신분, 재산, 직업 따위가 비슷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하지만 지금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계급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에는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이론이 있다. 마르크스는 계급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주아지(bourgeoisie)와 그렇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두 가지로 양분하여 설명하였다.<sup>7</sup> 막스 베버는 계급, 신분, 당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서 생산에 대한 소유의 유/무 외에도 지위나 정당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도 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sup>8</sup> 이들의 계급 개념은 중간계급의 계급적 위치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현대의 마르크스주의자와 베버 주의 이론가들이 이들의 이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현대 마르크스주의인 라이트의 이론은 중간계급의 위치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트는 계급을 먼저 생산수단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나누고 생산수단 소유자를 소유자가 일을 하는지의 여부, 노동자를 고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시 나누었다. 자신은 일하지 않고 남을 고용할 만큼 자본이 충분한 계급을 부르주아, 자신도 일해야 하나 남을 고용할 만큼 자본이 충분한 계급을 소고용주, 남을 고용할 수 없고 자신이 일해야 할 정도의 자본이 있는 계급을 프티 부르주아로 명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금 생활자는 다시 9개로 세분화했다.<sup>9</sup> 이 논문에서는 라이트의 이론에 기대어 여성 히어로의 계급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봉순>은 겉으로 보기엔 힘이 센 여자가 범죄자를 처단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구하는 영웅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자 히어로의 계급 변화 양상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원하는 직장도 가질 수

7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진우 역,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10, 16쪽.

8 막스 베버, 박성환 역, 『경제와 사회』, 나남, 2009, 401~428쪽.

9 에릭 올린 라이트, 이한 역, 『계급론』, 한울, 2005, 131쪽.

없고 꿈도 펼칠 수 없었던 한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성공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강남순〉의 경우 돈이 많고 의로운 힘센 영웅들이 범죄자를 처단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 스토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돈 많은 영웅들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불평등한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불편한 장면들도 동시에 나타난다. 스텐턴 홀은 미디어가 재현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재현이란 반영과는 다르게 선택과 제시, 구조화와 형태 결정의 능동적인 작업을 의미한다. 홀에 의하면 미디어는 재현이란 과정을 통해 나름의 의미를 실천하고 생산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디어의 재현 과정은 불균등한 분배 구조를 지지하거나 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0</sup> 홀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드라마에는 몇몇 혐의점들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도봉순〉과 〈강남순〉에 나타난 여성 히어로 캐릭터와 범죄 해결 서사를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자 한다.

## 2. 성 역할 전복의 성취/실패: 〈힘센여자 도봉순〉

〈도봉순〉의 주인공 도봉순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처음 등장한다. 대학을 나오지 못해 전화 안내원부터 안 해본 게 없는 봉순은 취업이 쉽지 않은 취준생이다. 봉순에게는 의사인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는 남동생만 예뻐하고 봉순은 보기만 하면 구박한다. “청년 백수 300만 명 시대라고 해도 그 300만 명 중에 내 딸이 1일 줄이야, 어이구. 어휴, 정말, 야, 너 그냥 시집가, 응? 돈 많고 정신없는 놈 하나 붙잡아 가지고, 알았어?”(1화 중)가 엄마가 봉순에게 하는 평상시 말투다. 엄마가 보기에 힘

이 센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봉순이 성공하는 방법은 돈 많은 남자 하나 만나서 결혼하는 것뿐이다. 봉순은 그런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이 들어 살아간다. 이처럼 〈도봉순〉에서 슈퍼히어로는 그 당시 청년 취업난<sup>11</sup>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작고 초라하게 등장한다.

봉순의 아빠 도칠구는 도봉동에서 작은 호두 가게를 운영한다. 아르바이트 한 명을 두고 자신도 직업 매일 일하면서 살아가는 칠구는 라이트의 계급 개념에 따르면 소고용주에 해당한다.<sup>12</sup> 칠구는 매일 아내 진이에게 수금을 당하고 몰래 숨겨 둔 돈으로는 봉순에게 옷 사 입으라고 용돈을 준다. 직업도 없고 부모에게 번번한 용돈도 못 받고 살아가는 봉순에게 옷 하나 사 입는 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이벤트와 같다.

도봉순은 아인소프트 회사 사장 민혁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데 민혁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봉순의 사회적 위치는 상승한다. 민혁은 봉순을 사랑하게 될수록 봉순을 자신의 경호원이자 비서로, 기획개발팀 비정규직으로, 정직원으로 점차 승진시킨다.

안민혁: 이력서 가져왔어요? 우리 회사 면접 본 적 있어요?

뭘야? 이런 경력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겠다는 거야? 용감하네.

도봉순: 학벌, 나이, 성별 안 보는 회사라고 해서 지원한 겁니다.

안민혁: 용감해, 확실히 용감해.

(도봉순 1화)

10 스텐턴 홀, 임영호 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북, 2015, 371~372쪽.

11 우리 사회가 ‘사실상 백수’ 300만 명 시대를 넘어 4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4만 명이 줄어든 올 1월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체 실업률 3.6%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자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장용석, 『사실상 백수’ 300만 넘어 400만 시대로』, 『아시아경제』, 2009.02.12).

12 에릭 올린 라이트, 앞의 책, 131쪽.

안민혁: 내일 도봉순 기획개발팀에 인사 발령 내. 인사 팀장한테 내가 미리 얘기해 놔어. 아, 재 저렇게 되됐다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뭐, 회사에라도 묶어놔야 내가 안심되지.

안민혁: 우리 회사 기획개발팀은 회사 내에서도 최고의 브레인들만 모인 태스크 포스야. 근데 너 거기 바로 들어가면 낙하산이라고 찍혀. 야, 어떻게 내가 너 왕따 당하는 거 지켜보겠니?

(도봉순 10화 중)

봉순은 아인소프트 회사에 입사해 본인을 닮은 캐릭터로 게임을 개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만다. 봉순의 꿈을 이루기에 봉순이 가진 학력과 이력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했다. 그런데 봉순이 조폭들을 때려눕히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한 민혁은 봉순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채용한다. 이때부터 봉순은 연봉 6000만 원에 업계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 드디어 임금 생활자로 계급이 올라간 것이다.<sup>13</sup> 이후 봉순은 자신의 꿈이 아인소프트 회사에 기획개발팀에 정직원이 되는 거라고 계속 민혁을 조른다. 민혁은 봉순이 범인을 잡다가 다칠까 봐 보호하기 위해 정직원을 시켜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봉순의 게임 개발을 돕는다. 그래서 봉순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봉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꼭 게임으로 실현시키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그것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킨 것은 전적으로 민혁이었다. 민혁의 직권 남용이 없었다면 봉순의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 신데렐라 콤플렉스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여성의 남성 의존 심리를 의미한다. 즉,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줄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린다는 것이다.<sup>14</sup> 신원선은 21세기 들어 TV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은 남자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인정받고 홀로 독립할 수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sup>15</sup> 신원선의 주장처럼 21세기 들어 여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자 주인공의 지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런 점을 볼 때 <도봉순>에서 민혁을 통해 봉순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혜는 여성의 자립적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퇴행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민혁이 도봉순을 경호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전통적 남성적 역할에 여성을 위치시키는 것 같지만 그 또한 결국 여성의 진로가 남성의 결정에 좌우되는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를 나타낸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도봉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획 의도를 보면 이 드라마가 “만일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세다면 세상은 어찌 되었을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진은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쾌하고 통렬한 기분을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sup>16</sup>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적중했다. 많은 사람이 힘센 여자가 전해주는 쾌감을 즐겼다. 이런 이유로 이 드라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고정된 구조를 뒤집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힘의 영역에서 그런 전복이 이뤄지는 동안 직업과 관련된 꿈의 성취에서는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철저하게 남성에 의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제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해결되는 서사는 의존적 여성과 남성 우월적 구조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에르 마슈레는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필연적인 불일치가 존재할 수밖에

13 위의 책, 같은 쪽.

14 콜레트 다울링, 김영만 역, 『신데렐라 콤플렉스』, 을유문화사, 1991.

15 신원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신데렐라 콤플렉스’ 비평의 문제점: <꽃보다 남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503쪽.

16 <힘센여자 도봉순>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정보 중(<https://tv.jtbc.co.kr/plan/pr10010452>).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불일치 때문에 작품은 창작자의 의도를 온전히 담을 수 없게 된다. 즉, 문학 작품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작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sup>17</sup> 작품에 존재하는 모순은 다른 말로 하면 “작품 안에서 일어나는 파열”<sup>18</sup>이다. <도봉순>은 남자보다 힘이 센 여자를 상상하면서 남성의 도움이 필요 없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을 그리고자 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여성도 그려냈다. 즉, 이 작품에는 분명한 파열과 모순이 존재한다. 도봉순은 결국 민혁과 결혼에 성공하는데, 드라마에서 봉순과 민혁의 결혼은 세속적인 봉순의 엄마에 의해 신분 상승의 의미를 확실하게 획득한다.

황진이: 잤어?

도봉순: 아주 폭 잤지.

황진이: 진짜 잠만 잤다 이거야? 한심한 년

도봉순: 엄마, 우리 없이 살아도 자존심은 지키면서 살자

황진이: 없이 사는데 자존심이 지켜지는 줄 아니? 어휴, 바보, 똥개, 멍청이 같은 계집애. 그냥 덮치면 될걸. 힘만 세면 뭐해? 아유, 짜증 나.

(도봉순 3화)

도봉순: 엄마는 나보고는 그 사장 집에 가서 자라고까지 해 놓고서는 봉기는 여자랑 밥 한번 먹는 것도 못 하게 하나?

황진이: 애랑 너랑 같니? 하나는 수입이고 하나는 수출인데. 비싼 값에 수출하고 싼값에 수입하고 그러는 거야. 아휴, 정말.

(도봉순 3화)

위 대사를 볼 때 황진이와 자식들의 결혼을 경제적 가치의 교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자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결혼까지 이어지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을 남성의 보호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봉순에게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바보, 똥개, 멍청이 같은 계집애.” 하고 욕을 하는 것에서는 딸의 주체적인 삶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나타난다. 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돈을 위해 딸의 결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봉순은 물론 이런 진이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대립하지만 진이의 추진력은 민혁과 봉순이 가까워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결국 봉순은 민혁과 결혼하고 진이의 소원은 성취된다.

드라마는 분명 봉순과 민혁의 낭만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봉순이 범인을 쫓으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민혁은 기꺼이 감내하고 봉순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봉순 역시 돈이나 다른 이유 없이 민혁 자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명진은 이처럼 교환가치에 물들어 있지 않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낭만적 연애’라 불렀다.<sup>19</sup> 하지만 이런 낭만적 연애는 황진이라는 속물적 인물의 존재로 인해 그 순수함을 잃었다.

### 3. 사회 불평등 비판/강화: <힘센여자 강남순>

<강남순>의 주인공 강남순은 아빠를 따라 몽골 여행을 왔다가 아빠를 잃고 몽골에서 죽 산다. 스물두 살 때 부모님을 찾아 강남에 온 남순은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날리고 노숙자가 된다. 한강 교수부지에 쓰레기로 게르를 짓고 살아가는 남순은 거지 친구들을 사귀며 거지로 살아간다.

17 피에르 마슈레, 윤진 역, 『문학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2014, 69~264쪽.

18 위의 책, 138쪽.

19 박명진은 ‘교환가치’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는 남녀 사이에는 ‘낭만적 연애’가 개입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박명진, 「TV 드라마 <하얀 거탑>에 나타난 영상 미학과 각색의 의미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543쪽).

그때 남순은 경찰 강희식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강희식은 한강이 보이는 타워팰리스에 산다. 시야가 초인적으로 좋은 남순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강의식을 올려다보는데, 이러한 카메라 구도는 계급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조다. 이러한 구도를 통해 거지인 여자 주인공과 잘 사는 남자 주인공의 계급 격차가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희식은 남순에게 엄마를 찾아주고 남순은 엄마가 대한민국의 가장 현찰이 많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남순의 계급은 강희식보다 훨씬 높아졌다. 졸지에 노숙자에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된 남순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계급의 양극단을 모두 경험한 꼴이 됐다. 몽골 초원에서 살다가 대한민국 노숙자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살게 된 남순은 극단적 계급의 표상이다.

이 드라마에는 남순의 엄마인 금주가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나온다.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나오지 못한 금주는 엄마인 길중간이 준 1억을 종갓돈 삼아서 해장국집을 차리고 주식을 하고 땅을 사서 부자가 된다.

길중간: 선짓국 집이 초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개가 산 주식이 3년 후에 상장이 돼서 10배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임야야. 그 임야는 아파트로 개발이 된 거 있죠? 근데 그 임야를 그냥 판 게 아니라 아파트 시공하는 데 같이 뛰어들 거야. 남자들이 판을 치던 건설 현장을 혼자 힘으로 평정을 한 거예요. 손만 대면 황금이 되는, 말 그대로 황금 손이 된 거지. 나이 스물넷에 그 당시 순자산이 100억이 된 거예요. 돈이 돈을 낳는다고 손을 대는 것마다 터졌죠.

(강남순 8화)

“돈이 돈을 낳는다”는 중간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황금주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인물이다. 장귀연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마르크스 계급론의 적실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

크스의 시대처럼 자산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 사이의 양극화 및 이해관계의 적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을 기회를 갖지만, 불안정한 노동과 빈약한 복지로 말미암아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sup>20</sup> 황금주는 마장동에서 일한 엄마 덕분에 자산 투자를 할 기회를 어린 나이에 얻었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계급의 격차는 점차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중간층은 사라지고 있다. 전체 개인 보유 주식의 73%를 최고 1%가 차지하고 있고 전체 부동산의 78%는 최고 10%가 차지하고 있다. 가구 소득별 1분위와 5분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9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새로운 계급 사회, 혹은 모래시계 사회는 도시라는 공간에서도 양극화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노동의 양극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계급 양극화는 도시의 양극화, 공간의 양극화와 악순환 고리를 반복한다. 이제 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된 공간과 슬럼화된 공간으로 모래시계처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sup>21</sup> 황금주는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강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개발과 성장과 시장주의의 상징이 된 도시였다.

〈강남순〉 2화의 제목을 보면 “강남순 강남에 오다”이고, 8화의 제목을 보면 “강남의 빛과 그림자”이다. 이 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강남순이 계급의 양극화 현상이 강한 강남에 와서 살게 됐다는 점이다. 본인이 직접 거지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노숙했던 경험이 있던 강남순은 마약 범인을 잡기 위해 두고라는 유통회사에 택배 일을 하면서 낮은 계층의 삶을 지속해서 경험한다. 그때 과로사로 죽은 동료의 사연을 들으면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고찰을 진지하게 시작한다.

20 장귀연,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의 과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9(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113~121쪽.

21 이득재, 「공간, 계급, 그리고 로컬리티의 문화」, 『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206~215쪽.

남순: 과로사?

형사: 뭐, 카드 빚이 4천만 원이 넘어서 신용 불량 되고 그러니 닥치는 대로 일한 거 같더라고요. 지명 수배자 신고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하고 뭐, 돈 되는 건 다 했더라고. 낮에는 두고 하차랑 배달하고 그,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또 휴일에는 야간 포차에서 일하고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아 놓으면 방세가 밀려서 또 쫓겨나게 되고 악순환이지.

남순: 한국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니야? 한국은 그렇다던데?

형사: 몽골에서 왔다더니 도통 아무것도 모르시네. 한국도 지구에 있는 나라지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강남순 8화)

남순: 간이식. 물류 창고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제 죽었어. 어떻게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죽어선 안 되는 거잖아.

희식: 너희 어머니같이 돈 많은 사람이 있단 소리는 누군가는 돈이 정말 없어야 그게 가능해. 자본주의가 도박판 같은 거라서 판돈은 정해져 있어.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따지.

남순: 자본주의

희식: 빛과 그림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야.

남순: 내가 그 그림자로 뛰어가서 빛이 돼 주고 싶어.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강남순 8화)

남순은 자신이 자본주의가 만든 어두운 그림자에 빛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다. 여기서 빛과 그림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순의 말은 사회 불평등을 해

결하고 싶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이런 대사를 통해서 보면 이 드라마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부자 영웅 캐릭터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남길: 근데 따님도 찾으셨는데 가족 부츠 일 계속하실 겁니까?

금주: 해야 돼.

남길: 아, 왜 해야 하는지...

금주: 지켜야 돼. 범죄로부터. 내 돈 어디다 써? 1년에 내는 세금만 4천억이 넘는데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직접 해결할 거야! 시작은 내 딸 남순이 때문이었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신이 남순이를 지켜 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 평생의 사명이 됐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

(강남순 2화)

남순을 잃어버리고 금주는 배트맨처럼 자신의 초인적인 힘과 넘쳐나는 부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순을 찾은 후에는 남순과 함께 악당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선한 자본을 꿈꾼다. 특히 오플렌티아라는 국제적인 단체에 가입해서 전 세계적인 정의를 위해 자기 돈을 사용한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부자 영웅들을 내세워 사회의 불평등이 가지고 온 여러 문제를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동시에 불평등한 현실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장면도 만들어 냈다. 남순은 경찰인 희식과 사귀고 상견례 자리까지 마련하였다. 그때 희식의 어머니는 몽골에서 살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대학도 나오지 못한 남순이 못마땅했다.

희식 모: 대학은... 하긴, 나왔을 리가.

금주: 저도 대학 안 나왔습니다. 여기 제 호텔이니까 편하게 더 주문하십시오. 나중에 사돈 되시면 아무 때나 조식 드시러도 오시고요.

희식 모: 이 호텔이 안사돈이 소유주란 말씀이세요?

금주: 네. 부끄럽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제가 호텔도 겨우 6성급밖에 안 되는 곳에 모시게 돼서. 결혼하게 되면 강서방 명의로 건물 하나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희식 모: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좀 확 당기죠.

(강남순 16화)



희식 모(母)는 남순이 대학을 나왔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순을 무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짓는다. 이를 눈치챈 금주는 자신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재력을 자랑한다. 자신이 가진 건물이 많아서 희식이 남순과 결혼하면 건물을 한 채 선물로 줄 것이며 강남에 새집을 구해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에 희식 모는 바로 돌변해서 결혼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남순의 외할머니인 길중간이 자신의 집안이 유연을 중시한다고 하자 갑자기 희식 부(父)는 일어나서 다리를 찢으며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재롱을 부린다. 희식은 놀라서 말리지만 남순은 유쾌하게 웃어 버린다. 희식의 부가 그렇게 한 것은 돈이 많은 사돈 집안에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극명한 권력 구도가 나타난다. 자신의 시아버지가 될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민망해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는 태도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남순의 실체를 나타낸다.

남순과 그의 어머니인 금주, 외할머니인 중간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돕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거침없는 언사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해 생긴 권력 불균형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재현한다.

스튜어트 홀은 방송인이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선택 목록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sup>22</sup>고 말했다. “어떤 진술이 무의식적으로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틀과 분류 체계에 의존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면서도 진술자는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sup>23</sup>는 것이다. 홀의 의견에 따르면 <강남순>을 만든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자연

22 스튜어트 홀, 앞의 책, 385쪽.

23 위의 책, 386쪽.

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었음을 모를 수도 있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도봉순>과 <강남순>을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하였다.

<도봉순>의 주인공 도봉순은 취준생으로 등장했고 이는 백수 300만 시대를 상징했다. 도봉순은 자신이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사장과 사랑에 빠지면서 임금 노동자로 승격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계급이 계속 상승한다. 사장과 결혼하면서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루길 바랐던 봉순 엄마의 속물적 꿈의 성취기도 했다. 이러한 서사는 이 드라마가 아무리 힘센 여자 캐릭터로 기존의 성 역할에 대한 전복을 꿈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강남순>의 주인공은 강남에서 노숙자로 살다가 상위 1%, 가장 현찰이 많은 부자로 살게 됐다. 이는 신자유주의 극심해진 빈부격차를 상징한다. 남순은 가난해서 죽은 사람을 보면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빈부 격차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드라마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순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가진 힘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강남순>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온전히 비판해 내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계급’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여 <도봉순>과 <강남순>이 매우 모순적인 작품임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에는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빈부격차 비판’이라는 점에서 각각 성취한 부분과 성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질적으로 겹쳐 있었고 이는 작품에 많은 균열을 만들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논문

- 권유진, 『『박씨전』과 TV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의 영웅 형상화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23.
- 막스 베버, 박성환역, 『경제와 사회』, 나남, 2009.
- 박명진, 「TV 드라마 <하얀 거탑>에 나타난 영상 미학과 각색의 의미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 서은선,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에 나타난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계승 양상: 고소설 <박씨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포은학연구』 32, 포은학회, 2023.
- 스튜어트 홀, 임영호역,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컬처북, 2015.
- 신원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신데렐라 콤플렉스' 비평의 문제점: <꽃보다 남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 에릭 올린 라이트, 이한역, 『계급론』, 한울, 2005.
- 이득재, 「공간, 계급, 그리고 로컬리티의 문화」, 『로컬리티 인문학』 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 이혜리, 「텔레비전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의 낭만적 사랑과 '무해한 남성성'의 출현」, 『인문사회21』 11(4), 인문사회21, 2020.
- 이훈, 「한국형 판타지 드라마의 여성 초능력 캐릭터에 대한 연구: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장귀연,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의 과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9(3),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이진우역, 『공산당 선언』, 책세상, 2010.
- 클레트 다울링, 김영만역, 『신데렐라 콤플렉스』, 을유문화사, 1991.
- 피에르 마슈레, 윤진역, 『문학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2014.

### 2. 기타 자료

- 강서정, 「『썰전』 대통령 표창·'도봉순' 작가 문체부장관 표창 수상」, 『OSEN』, 2017.12.05.
- 어환희, 「도봉순보다 세졌다...약당 훈풀내는 강남순」, 『중앙일보』, 2023.10.31.
- 연희선, 「끝까지 썬 '도봉순', TV화제성 1위 중영 "누리꾼 애정 '역대급'"」, 『티브이데일리』, 2017.04.17.
- 장용석, 「'사실상 백수' 300만 넘어 400만 시대로」, 『아시아경제』, 2009.02.12.
- 한해선, 「9.8% '강남순', 4회만 '도봉순' 시청률 추월..넷플릭스 전 세계 5위 ↑」, 『스타뉴스』, 2023.10.16.
- 황진미, 「일체의 억압도, 고구마도 없다: '힘센여자 도봉순'에서 '힘센여자 강남순'까지 6년 걸렸다대 환.영.」, 『한겨레』, 2023.10.21.

---

**Abstract****A Study on Contradictory Class Patterns in Female Superhero Stories**

Focusing on the TV dramas <Strong Woman Do Bong-soon> and <Strong Woman Gang Nam-soon>

Kang, Sung-Ae | Kyungmin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female heroes shown in the TV dramas <Strong Woman Do Bong-soon> and <Strong Woman Gang Nam-soon> using the keyword 'class'. This is to reveal that despite the two dramas being evaluated as successful female hero dramas, hidden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exist simultaneously.

In the TV drama <Strong Woman Do Bong-soon>, the main character Do Bong-soon is a psychic living in Dobong-dong, Dobong-gu, Bong-sun, who is unable to get a job because she did not graduate from college, is a symbol of youth employment difficulties. Bong-soon's rank gradually rises as she falls in love with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she wanted to join. Because of her chaebol boyfriend, she is able to achieve a dream she could not achieve on her own and get the job she wanted. And when she marries her boyfriend, she gets a happy ending of rising social status, enough to make a living without having to work anymore. This development causes a crack in the female hero narrative in which a strong woman overpowers a vicious criminal that neither the police nor men could catch and brings happiness to the neighborhood where she lives.

In the TV drama <Strong Woman Do Bong-soon>, the main character Kang Nam-soon is a psychic who lived in Mongolia and came to Gangnam at the age of 22 to look for her parents. Nam-sun, who became homeless after being defrauded, learns that his mother, who lives in Gangnam, is the richest person in Korea. Nam-soon, who went from being homeless to becoming one of the richest 1% and living in Gangnam, is a symbol of the polarized class in the neoliberal era. Nam-soon is shocked and distressed by the unequal social structure. However, as she succeeds in marrying the man she wants with her wealth, she shows ambivalence in enjoying unequal power relationships. These scenes conflict with the message criticizing social inequality that the drama has shown throughout.

The TV dramas <Strong Woman Do Bong-soon> and <Strong Woman Gang Nam-soon> are works that have received many positive reviews. However, it has clear limitations. The wrong aspects of class representation hidden behind the device of female heroes must be clearly criticized and corrected.

**Key words** TV drama <Strong Woman Do Bong-soon>, TV drama <Strong Woman Gang Nam-soon>, female hero, class, contradiction

---

이 논문은 2024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0월 15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